

비가 땅에 닿기 싫은가보다

THE RAIN DOESN'T WANT TO TOUCH THE GROUND

Open Studio 2025. 6.13. - 6.15.

Exhibition 2025. 6.17. - 7.25.

studio D.

하셀 알 람키 Hashel Al Lamki

Orange Matter

천과 발견된 오브제에 천연 안료, 오일, 오일 파스텔, 아크릴, 글리터

하루의 마지막 빛 속에서 주운 물건들이 반짝입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삶의 조각들.

가파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저녁 산책길에는 마치 허물을 벗은 듯한 구멍조끼, 풀숲에 엉켜 햇빛에 바랜 천 조각, 그리고 열린 손으로 건네는 감동이 보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이고도 인간적인 '건네기'의 순간들이 바로 <Orange Matter>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주도 인근의 작은 섬 가파도에서 머무는 동안 수집한 오브제들로 구성된 설치 작업입니다.

제주도가 남긴 흔적들 - 버려진 천, 잊힌 재료, 아마도 풍덩이과에 속하는 딱정벌레, 그리고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이 남긴 잔해 - 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와 배편은 날씨와 물의 흐름에 따라 '아마도'의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재료들은 따뜻함과 기억을 일깨웁니다.

떠다니는 패널들 - 어찌면 깃발 같기도 한 - 과 판자 모양의 형상으로 재조립된 이 요소들은 유물이거나 폐허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과정은 '돌봄'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불친절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너그러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성찰하는 명상입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우리는 다른 땅으로 흘러갔다" - 내가 언젠가 썼던 이 말은 떠남과, 탐색,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경험을 되새깁니다.

가파도에서 해녀들은 산소통 없이 바다로 잠수합니다. 숨을 내쉬고 다시 떠올라 바다의 풍요 - 해산물과 해조류 - 를 안고 나옵니다. 이들의 노동은 섬과 그 이야기를 지탱합니다. 나는 내가 모은 식물에서 이와 같은 리듬을 봅니다. 사용, 소멸, 그리고 귀환의 순환.

지역의 재료와 리듬을 끌어들이므로써, Orange Matter는 섬의 숨결과 하나가 됩니다.

기억으로 만든 쉼터.

남겨진 것으로 빚어낸 선물.

Orange Matter

Natural pigments, oil, oil pastels, acrylic and glitter on fabric and found objects

Found objects glint in the last light of the day - pieces of life washed ashore.

Evening walks along Gapado's edge reveal life jackets like shed skin, sun-bleached cloth tangled in grass, and tangerines passed across with open hands. Such moments of offering—natural and human—form the point of departure for *Orange Matter*, a textile installation comprised of found objects, produced during my time on the small island of Gapado, off of Jeju.

This work is made from what Gapado island leaves behind—discarded fabric, forgotten materials, beetles (likely of the Scarabaeidae family), and the residue from waves and unpredictable typhoons. Boats and ferries move to a 'maybe' schedule, according to the rhythms of weather and water. Amid this instability, these materials are reminders of warmth and memory. Reassembled into floating panels—perhaps flags—and plank-like forms, these elements are neither relics nor ruins, but reborn.

For me, this process is an act of care. It is a meditation on how to remain generous in a world that can be unkind. "Since you gone, we fleet to other lands," I once wrote—words that echo the experience of departure, of seeking, of rebuilding.

On Gapado, the haenyeo—female free divers—descend without oxygen, surfacing with breath and abundance - seafood and seaweed for sustenance. Their labour sustains both the land and its stories. I see this same rhythm in the textiles I gather and recompose: a cycle of use, decay, and return.

By incorporating local materials and rhythms, *Orange Matter* becomes part of the island's breath.

A shelter made from memory.

A gift shaped from what remains.